

지역 매아리

부안군, 겨울철 상수도

계량기 동파방지 준비 철저

부안군은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예측되는 만큼 상수도 계량기 동파방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11월 검침시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동파예방 홍보지 2만 5000부를 각 가정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수도 계량기 동파로 인한 불편을 제로화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자체 복구반을 편성하는 등 24시간 긴급복구 대비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부안군 김진우 맑은물사업소장은 "겨울철 상수도 계량기 동파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보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따뜻한 겨울나기를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우식기자

정읍시보건소, 신생아 대상

피내용 BCG 예방접종 안내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에서는 생후 4주 이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피내용 BCG 예방접종을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되는 BCG 백신의 첨부 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출하를 정지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경파용(도정형) 건조비씨지백신(일본규주)이다. 일본 후생성은 백신이 아닌 첨부 용액(생리식염수액)이 일본약전 비소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에서는 건강영향결과, 함유된 비소로 인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생성의 조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국내 비씨지백신 대체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의 회수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결핵예방접종용 백신인 피내용(주사형) BCG백신은 국내 충분히 공급되고 있으며, 정읍시에서는 현재 보건소와 수성동 현대아파트청소년과 2개소에서 피내용 BCG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 예방접종실(539-6119)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농업 러시아 대륙을 꿈꾼다'

고창군-러시아 모스크바주 농업 교류협력... 지역 농특산물 수출·유통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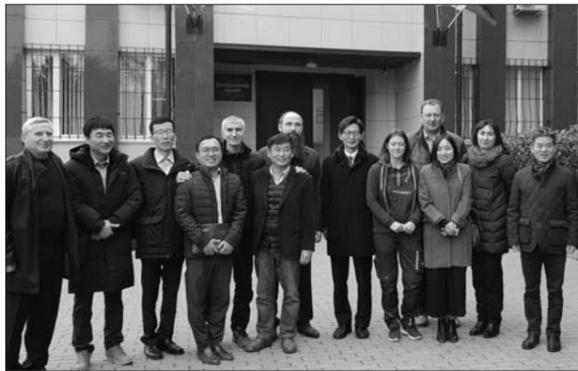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최고 품질의 고창 농·특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세계 시장 진출에 나섰다.

고창군은 유기상 군수를 단장으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주를 방문하여 농업관련 시장개척과 농업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군 방문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고창군을 방문하여 1차 교류를 나눈 러시아 농업분야 3대 회사인 말리노 그룹의 초청으로 진행됐다.

군 방문단은 체류 기간동안 러시아 말리노 그룹 및 계열사 농장방문, 현지 대형유통업체 시장조사, 모스크바주 농림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고창 농업의 러시아 교류를 모색했다. 말리노 그룹은 러시아에 감자, 채소, 유제품 등을 생산하고 러시아 전역 3,000여 유통망을 갖춘 러시아를 선도하는 농업회사로 고창군과 이번 우호협력을 통해 농업 재배 기술교류, 고창 농특산물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지원 및 양국의 시장정보 교류를 협력기로했다.

또한 모스크바주 농림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러시아 농식품 생산과



고창군이 유기상 군수를 단장으로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주를 방문하여 농업관련 시장개척과 농업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유통현황을 살피고, 한국과의 협력사업시 고창군의 역할을 요청받았다. 군은 또한 러시아 농생명 6차산업도시를 계획하는 스푸피노시의 시장과 면담을 통해 고창형 관광농업 교류, 양 도시간 문화교류까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근 한국-러시아 양국간 우호협력 분위기에

국정 기조인 신북방정책의 한 축인 농업분야에서 이번 고창군과 말리노 그룹, 모스크바주의 교류가 농생명식품산업 수도로 나아가고 고창군에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고창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흥덕면 후포 보건진료소 '문 활짝'

4억4000만원 투입 신축 개소... 진료실·물리치료실·건강증진실 등 쾌적

고창군 흥덕면 후포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후포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어 본격적으로 진료 개시했다.

고창군은 12일 유기상 군수, 이봉희·최인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포보건진료소 신축 개소식'을 가졌다.

흥덕면 후포 보건진료소(후포리 503-1번지 일원)는 국비 2억 3000만원 등 총 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716㎡의 부지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 연면적 152.28㎡의 규모로 신축됐다.

흥덕면 후포리 일원은 주민 640여명이 거주하는 의료취약지역으로 군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신축을 추진했다.

후포 보건진료소가 개소되면서



고창군이 12일 유기상 군수, 이봉희·최인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포보건진료소 신축 개소식'을 가졌다.

고창군은 37개 보건기관이 군 전역에 포진돼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과 사방방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활력 넘치는 삶과 건강증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군민 여러분이 건강해야 지역이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수도 고창'을 흔들림 없이 이뤄갈 수 있다"며 "후포 보건진료소가 주민 모두가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좋은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 할 수 있도록"

정읍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조기완료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당초 계획인 11월 말보다 20여일 앞당겨 사업을 조기완료 했다.

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앞당겨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복권기금) 50%를 지원받아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개·보수하지 못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도 국비(복권기금)와 시비를 합쳐 2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수량 74가구보다 30가구가 많은

104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사업내용은 지붕개량, 도배·장판, 생크대 교체와 창호, 담장보수 등 크고 작은 집수리다. 시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대상세대에 대해 따뜻한 보급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간 저소득층 수혜세대들은 복권기금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생활에 큰 도움을 받았으며,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하여 높은 만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인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농민단체연합회(회장 이석번)와 축산단체연합회(회장 이영근)는 지난 11일에 농업인의 날을 맞아 천변여린 이축구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 23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정읍시 농민단체와 축산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 단체의 화합을 꾀하는 물론 회원 간 영농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시식회와 할인판매 등을 실

시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도 있었다.

개회식에서는 농업현장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정읍시 친환경연합회 김용규(이평)를 비롯한 6명이 농업인이 시장표창을 받았다.

또 전 농민단체연합회 김봉환(감곡)회장이 농업인대상을,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박경철 씨를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이 농민·축산단체연합회장 감사패를 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을철 산불방지 예방교육 실시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12일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지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동요령과 안전조치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이들 감시원은 산불예방 홍보를 통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진화대원은 산불진화 업무와 더불어 산불위험 요인 제거 작업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8년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인력배치와 교육 외에도 산불감시 카메라 5대와 산불진화차 3

대, 등짐펌프 20점 등 진화장비 총 24종 1,500점에 대한 정비점검을 완료했고, 산불 진화용 급수차 1대를 추가 도입하여 초동 진화태세를 갖추었다고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한 화재사건에 의해 인명·재산피해가 많이 발생 한 만큼 우리시가 이러한 산불재난으로부터 안전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참석해주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의 역할이 크다"면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지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이러한 산불위험요인을 공동소각을 통해 사전에 제거하여 올해 가을철뿐만 아니라 내년 봄철 산불재난 예방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당부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three bottles of wine on the left. In the center, there are several gift sets of wine in different packaging. On the right, there is a cartoon bear mascot and a large image of a mulberry. Text in the center reads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Below the gift sets, there are labels for different sets: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세 | 750ml 1ea/12%',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세 | 375ml 5ea/13%', 'GIFT SET 6세 |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and 'GIFT SET 7세 | 375ml 2ea/13%'.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TEL : 063-584-8980 www.gangsanwine.com'.